

# “석여의 본서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작품”

## <57>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의 탕용동(湯用彤)거사 <끝>

중국 근대에 양문회-구양경무-여징의 3대 거사들을 통해 명·청대에는 쇠락했던 불교와 불교학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부흥했다. 그 과정에서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직접 해외에서 유학을 통해 받아들인 이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탕용동(1893-1964) 거사이다.

거사는 청(淸)의 광서(光緒) 19년(1892) 6월 21일에 감숙(甘肅)의 위원(魏源)에서 태어났고, 자(字)는 석여(錫予)이다. 본래 집안의 원적(原籍)은 도신(肅)인 산시(陝)의 동산법문(東山法門)으로 유명한 호북(湖北)의 황매(黃梅)였지만, 거사의 부친이 진사에 합격해 위원의 지현(知縣)에 제수 받아 그곳에서 태어났다. 거사의 부친은 거사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직을 그만두고 화당을 세워 후학을 지도했다. 이러한 환경은 거사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매우 능통케 하는 견실한 토대를 제공했다.

광서 말년에 거사의 집안은 북경으로 이주했다. 거사는 1911년에 북경의 순천(順天)학교에 입학했다가 다음 해 청화(淸華)학당(淸華大學)으로 옮겨 근대학문을 배웠다. 1916년 졸업하면서 거사는 학교 교

장(長)과 산스크리트의 강의를 맡았다. 거사와 구양경무의 반연은 거사의 불교학에 굳건한 토대를 갖추게 해 당시 유망한 수많은 불교학자들, 예컨대 구양경무의 제자인 여징(呂澂)과 왕은양(王恩洋)으로부터 양계초(梁啟超), 웅십력(熊十力) 등과 깊은 인연을 맺게 했다.

거사는 1926년에 천진(天津)의 남개(南開)대학에서 새롭게 근대학문의 틀을 마련하려는 총장의 초청으로 철학과 주입교수로 잠시 옮겨다가 1927년에 다시 중앙대학(淸 南開大學)으로 돌아왔다. 비록 1년 여의 기간이지만, 탕 거사의 노력으로 남개대학은 짧은 기간에 중국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갖게 됐다. 1930년에 다시 북경대학 문학부 원장으로 있던 호적(胡適)의 초청으로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불교사, 인도철학사, 위진현학(魏晉玄學) 등을 강의했고, 특히 중국불교사에 연구를 집중했다. 북경대학 재직 당시인 1933년에 집필하기 시작해 4년의 노력으로 완성한 것이 바로 유명한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漢魏兩晉南北朝佛敎史)>이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북경대·남개대·청화대학이 운남

史略), <이학(理學)·현학(玄學)·불학(佛學)>, <위진현학론고(魏晉玄學論稿)>,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漢魏兩晉南北朝佛敎史)>, <수당불교사(隋唐佛敎史稿)>의 대표적인 저술에 나타나 있다. 물론 이외에 상당히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소논문들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로부터 대체적으로 거사는 인도불교로부터 중국불교에 이르는 전체적인 사상과 역사를 관통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이러한 거사의 학풍은 그가 스스로 “어려서 집안의 가르침을 계승해 일찍이 을부(乙郇)·역사(乙郇)를 열람했다(幼承庭訓, 早覽乙郇)”라고 하듯이 선친의 영향으로부터 형성됐다. 이는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의 발문에서 “돌아가신 부친 우삼(兩三)공께서는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비록 입신행기(立身行己)의 대단(大端)을 순전히 타이르시지만, 어리석음을 깨우침에 있어서는 항상 이전의 사상과 행적을 살펴 비교함으로써 호되게 가르치셨다. 내가 조금 컸을 때 현원(玄遠)의 학문을 마음에 두고서 항상 내전(內典; 佛學)을 애독했다. 돌이켜보니, 또한 이전의 옛 사상의 맥락과 종파의 변천을 밝혀 찾음을 좋아했다”고 쓰고 있음으로부터 짐작된다.

거사는 학문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친으로부터의 기본적인 경사(經史)와 불교에 혼성된 소양에 미국 유학을 통한 새로운 학문의 연구방법을 융합하고, 다시 구양경무 거사를 통해 본격적인 불교연구의 장을 열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거사는 대체적인 중국불교의 사상은 인도로부터 전래돼 위진·남북조와 수·당대에서 이미 완전히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 송대 이후의 불교는 다만 수·당대에서 완성된 사상적 연변(演變)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거사의 관점이다. 그에 따라 거사는 집중적으로 동한으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불교사의 연구에 온 힘을 쏟았다. 거사의 대표적인 작품인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는 제목에서 짐작하듯이 남북조에서 그치고 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중국불교사의 강의와 연구를 진행했지만,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던 시기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것에 원인이 있다.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는 내용이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한대의 초전불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2부는 위진·남북조의 불교를 논했다. 특히 2



그림 · 김흥인

부에서는 현학과 불교의 관계로부터 양진의 명사와 명승, 오가침종의 반야화과, 구마라집과 혜원 및 그 문하, 각 종파의 연원 등에 대해 상세히 고증했다. 남북조 이후의 부분은 본래 거사가 중앙대학과 북경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수당불교사’의 강의안을 써서 등관인쇄로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을 후인들이 모아 거사의 강의내용과 소논문 등을 참고하여 정리해 출판한 책이 바로 <수당불교사>이다. 또한 거사의 아들인 탕일개(湯一介; 현 북경대 교수)는 이 <수당불교사>를 바탕으로 해 다시 자신의 <오대송원명불교사>를 추가해 <수당금오대불교사(隋唐及五代佛敎史)>(1979년)를 출판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모두 거사가 입적한 이후의 일이다.

거사의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는 출간시에 교열을 맡았던 호적 선생은 “석여(탕 거사)의 훈련은 극히 정밀하고, 자료 또한 뛰어나며, 연구방법 또한 세밀하니, 그런 까닭에 본서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작품이다.”라고 극찬을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 현재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불교사의 신기원을 이룬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뛰어난 저술이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탕용동 거사는 사실상 필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거사의 유명한 제자가 바로 임계유(任繼愈) 선생이고, 그의 제자인 위영해(魏永海) 선생은 바로 필자의 박사학위지도교수이다. 더욱이 필자는 본래 중국선종사의 연구를 위해 중국 남북조대에 유학을 했다가 중국선종사 연구보다 더욱 중요한 연구가 바로 위진·

남북조의 현학과 불교의 관계임을 깨닫고, 학위논문을 <불학과 현학의 관계연구>라는 제목으로 초기 중국불교와 유·도 양파의 사상사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러한 전환은 바로 탕용동 거사로부터 비롯된 학풍의 영향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 거사불교의 연재를 마치며 -

‘중국불교의 거사들’을 표제로 2008년 1월부터 연재한 본 기획연재를 이번 호로 끝을 맺게 됐다. 본 기획은 맹제형 거사의 거사들에서 시작됐다. 맹 거사의 <거사전>에는 역대 거사들을 시대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있고,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지 않아 역대의 중국거사들을 소개하고자 흔쾌히 연재를 수락하고 시작했었다. 2년 5개월의 기간에 중국불교의 거사들 같은 거사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은 오히려 필자에게 전체적인 중국불교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중국거사들을 소개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재가불자들에게도 자못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뛰어난 거사들의 해명에 흠집을 내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있다. 이후 보다 눈 밝은 이가 나타나 필자의 오류를 교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불교에도 눈 푸른 거사들이 보다 많이 나타나 불법을 더욱 살이게 해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연재를 허락한 현대불교신문사에 더없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게으른 필자로 인해 매회 실증을 내지 않고 원고독촉에 충실해준 조동성 담당기자님께 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 김진무 (중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유학 통해 받아들여

### 부친의 영향으로 불교의 사상·역사를 관통

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화주간(淸華周刊)>의 편집장을 맡았다. 1917년에 관비로 미국 유학생에 선발됐지만, 신병으로 1918년에서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에서 거사는 미네소타주 햄린(Hamline)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 등을 연구하다가 1919년에 하버드(Harvard)대학으로 옮겨 서양철학과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를 통해 집중적으로 불교를 공부했다. 당시 하버드에서 함께 유학했던 동료로는 청화학당을 함께 졸업한 오복(吳宓)과 서북(西北)대학 출신의 매광적(梅光迪)이 있었다. 중국 근대인문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들은 ‘하버드의 삼걸(三杰)’로 불렸다.

거사는 1922년 하버드에서 철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해 먼저 동남(東南)대학(후에 중앙대학으로 개명, 현 남경대학) 철학과 교수를 맡았다. 당시 마침 남경에는 구양경무 거사가 ‘지내내학원’을 설립해 천히 <유식결택담(唯識決擇談)>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거사는 여가시간을 거의 구양 거사로부터 불교학을 배우는데 할애했고, 이후 지나내학원에서

(雲南)의 곤명(昆明)으로 피난해 세운 ‘서남연합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다시 북경으로 돌아온 북경대에서 계속 교수직을 맡았다. 1947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Berkeley)대학의 초청으로 1년간 중국철학사를 강의했다. 1948년에 귀국해 국립 북평(北平)연구원의 원사(院士)로 선임되었는데, 불교학자로는 거사가 유일하다. 1951년에는 북경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1954년에 뇌일혈로 쓰러져 후유증이 있었지만, 후학의 지도에 여념이 없다가 1964년 5월 1일에 72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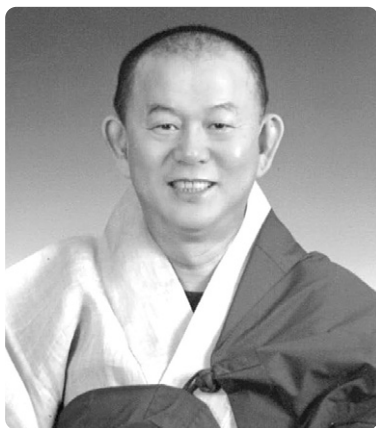
탕용동 거사는 전형적인 학자로서 이전에 논술한 양문회-구양경무-여징의 3대와는 전혀 다른 풍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불교학과 관련된 연구는 오히려 중국불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거사의 불교학에 대한 연구과정과 성과를 고찰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거사의 연구성과는 주로 <인도철학사(印度哲學

#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 집중 5일완성

저자: 법화종헌(정홍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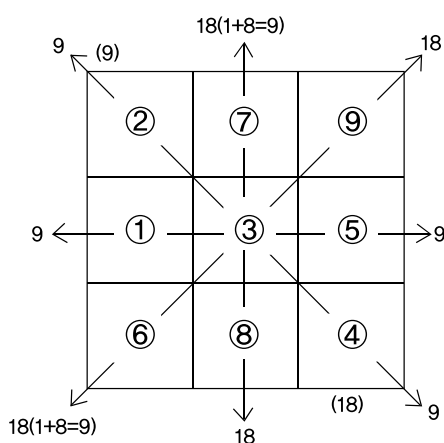
· 녹아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 강의

월·수·금 : 오후 2시 - 5시  
토·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궁회전, 임의성태,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입 가능함.

◆ 특전 : 승려종수지자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방문시 교재판매, 홈페이지 참조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www.psa.or.kr



구단구궁 원리도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담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사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예의해 · 실습	장례지도사 1, 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 2, 3, 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에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전 14시 - 17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법음, 법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문 종사영단 점안의식 시달릴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수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찰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걸	풍수 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14시 - 19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월·수·금 : 14시-17시 / 토, 일 : 13시-17시	· 구단구궁학개론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